

## 마이클 헨트의 답변에 대한 반론

스티븐 I. 레빈(몬타나 대학)

위의 글에서 헨트가 다소 마지못해 칭송하는 중국의 강한 국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필자는 이해하기 어렵다. 헨트에 따르면, 모택동은 폭력의 독점을 구축하고 중앙의 통제를 기층 인민들과 국경 지역까지 확장시켰으며,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제거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등소평과 그의 후계자들은, 필리핀 같은 약한 국가가 이루지 못한 과업, 즉 인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확보를 달성했다. 그러나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그리고 다른 많은 탈식민국가들의 엘리트처럼, 중국의 당-국가 엘리트 역시 부패하고 자신의 이익만 도모하며, 무엇보다도 그 자신의 권력을 영속시키려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기층 수준에서 국가의 독점적 폭력 행사는, 통제가 되지 않는 지역 당 관료들에게 복무하는 고용된 폭력배들에 의해 종종 이루어진다. 국경 지역, 특히 티베트와 신강 지역은 폭력에 의해 지배되는 내부 식민지다. 지난 30년 동안의 급속한 경제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불평등이 초래됐다. 중국의 강한 국가는 환경을 파괴하고 모든 저항을 탄압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점점 더 호전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외부인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바

꿀 수 없다.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중국이 우리 자신의 조합주의적 금권정치를 모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비판적 학자로서 우리는 확실히, 중국 인민들의 이익에 더 잘 부합할 어떤 것을 그려볼 수 있다.

## A Rejoinder to Michael H. Hunt concerning “The China Challenge”

Steven I. Levine(University of Montana)

I have a hard time recognizing the visage of the strong Chinese state that Michael Hunt somewhat grudgingly praises in our exchange that followed his original essay in *American Diplomacy*. According to Hunt, Deng Xiaoping and his successors, building on the foundation laid by Mao Zedong, who established a state monopoly of force, extended central control down to the grassroots and out to the border areas, and eliminated foreign interference in decision-making, have supposedly accomplished what weak states like the Philippines have failed to do, namely, secure a better life for its people. Yet, I would argue that the Chinese party-state elite, like elites in the Philippines, Myanmar, Vietnam, and many other postcolonial countries is corrupt, self-serving, and concerned above all with perpetuating its own power. At the grassroots level the state's monopoly of force is often exercised by hired goons and thugs in the service of local party officials who are a law unto themselves. The border areas, Tibet and

Xingjian in particular, are internal colonies ruled by force. Extreme inequality characterizes the distribut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over the past thirty years. The strong Chinese state ravages the environment, represses all dissent, and behaves internationally in an increasingly truculent fashion. As outsiders we cannot change that reality. As Americans we should not demand that China emulate our own corporate plutocratic democracy. As critical scholars surely we can envision something that would better serve the interests of the Chinese people.